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의 『어둠의 왕자』와 역사적 트라우마*

김 찬 기
(경희대학교)

1. 서론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Antonio Muñoz Molina)는 동시대 스페인 문학계에서 가장 굳건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중진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56년 스페인 안달루시아(Andalucía)주 하엔(Jaén) 지방의 우베다(Úbeda)에서 태어난 그는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그라나다 대학교에서 예술사를 전공했다. 첫 번째 소설인 『행복한 사람 *Beatus ille*』(1986)으로 이카로 문학상(el premio Ícaro)을, 두 번째 소설인 『리스본의 겨울 *El invierno en Lisboa*』(1987)로 그 이듬해에 비평상(el premio de la Crítica)과 국가문학상(el premio Nacional de Literatura)을 동시에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세 번째 소설인 『어둠의 왕자 *Beltenebros*』(1989)는 스페인 영화계의 거장이었던 필라르 미로(Pilar Miró) 감독이 1991년에 영화로 제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폴란드 기병 *El jinete polaco*』(1991)으로 플라네타 상(el premio Planeta)과 국가문학상(1992)을 다시 수상하는 영광을 누린다.¹⁾ 이러한 일련의 문학적 성과는 그를 서른아홉의 젊은 나이에

* 이 연구는 200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 임. (KHU-20080690)
1) 이후에도 무뇨스 몰리나는 『마드리드의 미스터리 *Los misterios de Madrid*』(1992)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 종신회원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또한 2004년 4월부터 2006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 de Nueva York) 원장으로 복무하면서 스페인어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지식인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뇨스 몰리나의 작품세계는 스페인의 문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동시대와 교호하면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현실과 이상, 순수와 참여, 유려한 문장과 대중적 소재 등을 지적인 문체로 자연스럽게 융화시키면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해왔다. 대표적인 초기 작품 중에서 세르반테스(Cervantes)의 서사적 경향이 엿보이는 『폴란드 기병』에서는 선대의 과거로부터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며 현재의 실마리를 푸는 젊은이의 정체성 회복을 형상화하며, 『리스본의 겨울』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와 유부녀 간의 사랑을 그리며, 『어둠의 왕자』에서는 탐정소설의 형식과 흑백 영화를 소재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행복한 사람』에서는 탐정 소설에 메타픽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형식과 내용을 견인하는 탁월한 문재(文才)를 유감없이 발휘한다.²⁾

와 『다른 세상은 관심 없어 *Nada del otro mundo*』(1993), 『비밀의 주인 *El dueño del secreto*』(1994), 『전사의 열정 *Ardor guerrero*』(1995), 『보름달 *Plenilunio*』(1997), 『세파라드 *Sefarad*』(2001), 『블랑카의 부재중에 *En ausencia de Blanca*』(2001), 『달의 바람 *El viento de la luna*』(2006), 『일기 *Días de diario*』(2007) 등을 집필하면서 왕성한 필력을 발휘한다. 또한 일간지 등에 투고한 글을 모아 『나우틸루스의 일기 *Diario del Nautilus*』(1985)를 출판하고, 나중에 『도시의 로빈슨 *El Robinson urbano*』(1993)이라는 타이틀로 재출간 한다. 단편집 『다른 생애들 *Las otras vidas*』(1988)과 수필집 『우마이야 왕조의 코르도바 *Córdoba de los Omeyas*』(1991), 그리고 뉴욕에서의 경험을 『맨하탄의 창문들 *Las ventanas de Manhattan*』(2004)로 출간하는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2)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는 스페인 유력 일간지 ABC와의 인터뷰에서 『어둠의 왕자』를 집필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전 작품과의 다른 점을 설명한다. “이 소설을 쓰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센티멘털한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연인과 친구에 대해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전 소설들은 우정과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나와 등장인물, 그리고 등장인물 간에 이루어지는 돈독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번 소설을 쓰는 동안은 너무 쓸쓸하고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머물렀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도전이었다. 나는 결코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당황하면서 절망에 빠져 마무리했다.” Cf. Ignacio Vidal-Folch, “Entrevista”, ABC, Madrid, 1989.

본 연구는 그 가운데 『어둠의 왕자』를 분석 텍스트로 삼아 기억을 매개로 스페인내전(1936-9)과 프랑코 독재(1939-75)라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설 속 사건의 배경이 되고 인물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1975년 프랑코 사후 스페인은 억눌렸던 자유에 대한 보상을 요구라도 하듯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더욱이 1982년 사회노동당(PSOE) 정권의 출현과 맞물려 과거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진다. 이러한 1980년대 스페인 사회의 변화는 무뇨스 몰리나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페인 내전 이후 프랑코 체제하인 1956년에 태어난 작가가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문학적 자산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의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내전과 독재시대를 경험한 스페인 사회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들을 소설적 진실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이루어온 문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무뇨스 몰리나의 작품을 통해 1980년대 후반의 스페인 문학의 흐름을 개괄하는 동시에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방식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시대적 배경

1975년 프랑코의 죽음으로 야기된 군부 독재의 종식은 스페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제도권에서는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완만한 민주화 이행기(Transición) 국면을 맞이한다. 1977년의 총선과 1978년의 새 헌법 제정, 그리고 1982년에는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집권하는 등 표면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특히 프랑코의 죽음이 던져주는 파장의 효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는 문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유럽과 미국의 대중문화를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스페인의 대도시는 급속한 속도로 젊은이들의 문화적 욕망의 해방구로 자리를 잡는다. 임호준(2003)은 당시의 다양한 문화현상들 가운데 두 가지에 주목한다. 첫째는 모비다(La movida) 문화 운동이고 둘째는 환멸(desencanto)의 정서이다. 전자는 각계각

층의 젊은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유행시켰던 현상을 일컫는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스페인의 문화적 욕구는 1980년대 중반까지 펑크, 록, 히피, 마약과 섹스 그리고 동성애 해방 운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산된다. 집권 사회노동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문화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는 반대로 환멸의 정서는 독재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꾀했던 좌파지식인들이 프랑코 사망 이후에 불거진 사회적 혼란을 대하는 냉소적인 심리를 대변한 어휘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프랑코의 죽음은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의 도래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악몽과 같은 현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에 내부로부터 점진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한 열망은 20세기 초반 제2공화정 시기(1923-30)의 화두였던 이베리아 반도의 유럽화, 유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펠리페 곤잘레스(Felipe Gonzalez) 수상인 사회노동당 정권(1983-95)은 이를 착실히 수행하여 정권 말기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스페인 사회가 누리고 있는 복지 인프라를 공고히 하게 된다.

한편, 프랑코 사후의 스페인의 문화적 현상은 후기산업화시대의 논리를 구가하던 대륙의 포스트구조주의와 영미권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논리와 교차점을 확보하지 못한다. 우리가 1980년대 후반에 촉발된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을 언급하면서 모더니즘적 경험의 유무에 관해 논쟁을 벌인 반면에 스페인은 비교적 조용히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사상적, 문화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즉 근대와 탈근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 시간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받아들여 재단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탈근대를 외치는 국가들도 근대적 혹은 전근대적인 문화까지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모순의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출간되던 1980년대 후반기의 스페인 문학 또한 시대적

3) Cf. 임호준(2003), 「과거의 유령: 80년대 스페인 문화와 무뇨스 몰리나의 포스트모던 소설」, 『서어서문연구』 제27호, pp 378-83.

상황과 맞물려 근대적인 동시에 포스트모던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1950년대 세대를 축으로 발전했던 실험적이고 엘리트적인 순수문학이 쇠잔해지고 새로운 흐름의 대중문학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무뇨스 몰리나를 비롯한 에두아르도 멘도사(Eduardo Mendoza), 바스케스 몬탈반(Vázquez Montalbán), 후안 마드리드(Juan Madrid), 로사 몬테로(Rosa Montero) 등 일군의 젊은 작가들은 프랑코 시대의 폐쇄성에 대해 종언을 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 조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무뇨스 몰리나의 『어둠의 왕자』는 주인공의 기억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내포한 서사를 통해 스페인 내전과 독재의 트라우마를 다루기 시작한 소설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에는 독재라는 직전 과거를 타부처럼 여길 만큼 문학적 주제로 다루기가 불편한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독재의 트라우마는 허위적인 박애주의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었던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과거를 부정하도록 유도”했고, “『어둠의 왕자』와 같은 소설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작가들은 내전과 프랑코이즘을 서사적 재료로 취하지 않았다.”⁴⁾ 따라서 스페인 내전과 독재에 얽히고 설켜 과거의 내면을 반영한 무뇨스 몰리나의 본 소설에 대한 연구는 과거 청산 문제라는 사회적 이슈의 이면에 존재하는 소설적 진실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들

1) 기억의 역사: 내전의 상흔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는 『어둠의 왕자』에서 서사의 씨줄과 날줄의 열개를 직조함에 있어 주인공 화자를 중심으로 내전을 통해 형성된 동료 간의 배반, 사랑, 증오 등으로 얼룩진 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특히 주인

4) Pasqual Mas(2002), *Beltenebros, de Muñoz Molina*, Madrid, Editorial Síntesis, pp. 9-10.

공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과 병치되면서 당면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매개가 된다. 사실 이러한 서사기법은 『폴란드 기병』에서 선형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마누엘(Manuel)은 옛 연인 나디아(Nadia)와의 대화를 통해 선대에 일어났던 과거의 진실을 파악하고 과거를 재해석함으로써 본인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⁵⁾

『어둠의 왕자』는 1인칭 주인공 화자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주인공 다르만(Darman)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기적 순서를 일탈하지 않고 서술된다.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편이기는 하나 소설 속 사건은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에 불과하다. 소설의 줄거리는 다르만의 새로운 임무와 20년 전에 수행한 살인 사건이 두 축을 이룬다. 소설에서 스페인 내전에 관한 언급은 매우 적다. 그러나 내전은 무뇨스 몰리나의 『행복한 사람』과 『폴란드 기병』에서처럼 시대적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소설은 공산당 비밀조직 내에서 발생한 배신과 증오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환언하면 『어둠의 왕자』는 국외에서 프랑코체제에 대항하는 인물군과 국내에서 동일한 미션을 수행하는 인물군 간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돈과 안락한 삶에 대한 유혹에 넘어간 부패한 조직원이 프랑코체제의 비밀경찰에게 조직의 정보를 넘기면서 동지들을 배신하면 이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전문킬러의 임무를 띠고 있다.

다르만은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파의 군정보부의 요원으로 근무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 망명하여 브라이튼(Brighton)에서 서점과 판화점을 운영하며 평온한 삶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반프랑코 지하 비밀조직의 배신자를 처단하라는 살인지령을 받는다. 이렇게 다르만은 내전 후 두 번째로 스페인을 방문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 방문은 20년 전 배신자 발터(Walter)를 처단하기 위해서였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동일한 성격의 임무를 띠고 마드리드를 방문하게 되면서

5) Cf. 안금영(2003), 『『폴란드 기병』, 발견된 과거와 정체성』, 『서어서문연구』29호, pp. 349-51.

스토리는 시작된다. 소설의 처음 문장은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라 만차의 어느 곳에...”로 시작되는 『돈키호테』(1605)의 도입 부분을 연상시킨다.

나는 일면식도 없는 한 남자를 죽이기 위해 마드리드에 왔다.(9)⁶⁾

사실 무뇨스 몰리나는 위의 첫 문장에 앞서 프롤로그에서 이미 『돈키호테』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⁷⁾ 다르만은 마드리드의 폐허가 된 창고에서 목표 물인 안드라데(Andrade)를 기다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목격하게 된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인쇄물 중에서 레베카 오소리오(Rebeca Osorio)의 소설을 발견한다. 20년 전 그녀의 애인 발터를 죽였던 다르만은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며 마드리드를 떠나 영국의 도피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끓지만 조직에 몸담은 자로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번에는 지체하거나 늦장을 부리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거기 도착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첫 비행기로 귀가한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 목을 호토티조차 잡지 않았다. 마드리드에 머무는 순간마다 가끔은 후퇴도 전진도 하지 않는 시간의 늪 속에 빠질 것만 같다.(63)

저녁에 외출한 다르만은 등 굽은 남자로부터 나이트클럽 ‘보이테 타부’(Boîte Tabú)의 입장권을 받아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 안드라데의 애인으로 보이는 수상한 여자의 스트립쇼를 관람한다. 그녀는 20년 전의 레베카 오소리오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꼴이었다. 나중에 쇼걸은 발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레베카 오소리오의 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다르만은 2층 측면 객석의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쇼를 구경하고 있는 정체를 모를 한 남자, 발디비아-우가르테(Valdivia-Ugarte)를 본다. 젊은 여자의 정체를 밝힐

6) 본고에서는 Antonio Muñoz Molina, *Beltenebros*, Seix Barral, 2003년 간행본을 인용하며 쪽수는 괄호 안에 직접 표기하기로 함.

7) “Unas veces huían sin saber de quién y otras esperaban sin saber a quién.” Cervantes, *Don Quijote*, II, LXI.

결심을 하고 분장실로 가서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드라데를 위해 돈과 여권을 가져왔노라고 말한다. 그녀는 엄마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젊은 레베카는 다르만에게 자신의 아파트 키와 주소를 알려주고 다르만은 그녀를 기다린다. 그녀는 술과 마약으로 그의 정신을 잃게 만들고 여권과 총을 탈취한 후 안드라데를 도피시킨다.

다르만은 수소문 끝에 마드리드의 고급 창녀인 레베카가 매춘을 하는 어느 호텔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다르만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애인을 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호텔 커피숍에 나타난 안드라데와 조우하고 그를 추격하지만 사실상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만다. 추격 중에 폐허가 된 병원에 몸을 숨겼던 안드라데를 향해 두 손을 꺼내 안심시키며 다가가는 다르만의 등 뒤에서 날아 온 총탄이 그를 명중시켰기 때문이다. 본부에서 다르만을 도와 미션을 완수하도록 파견된, 열정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루케(Luque)의 짓이었다. 허탈감에 빠진 다르만은 직관적 호기심을 가지고 레베카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을 다시 찾는다. 다르만은 레베카가 들어 온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찾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다르만은 2층 객석으로부터 ‘유니버설 시네마’(El Universal Cinema)의 부속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비밀통로를 발견한다. 그곳을 통해 예전에 발터와 레베카, 발디비아가 숨어 살았던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거기에는 창고와 나이트클럽 2층 객석의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공산당 비밀조직의 오랜 동료였던 발디비아로 모두가 죽은 걸로 알았던 사람이다. ‘어둠의 왕자’로 불리는 마드리드의 배신자로서 친프랑코측 첩보요원으로 암약했고 지금은 마드리드 비밀경찰의 책임자로 있는 우가르테란 자였다. 이십 년 전 발터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처럼 비밀조직의 수뇌부로 하여금 안드라데를 제거하도록 다르만을 파견하게 꾸민 자였던 것이다. 즉 발터와 안드라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장본인이며 베일 속에 감춰진 배신자로 레베카의 어머니를 광적으로 사랑하여 파멸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딸까지 감금하려했던 사람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르만은 이십 년 간 밝혀지지 않았던 배신자의 정체를 밝히고 처형하는 힘겨운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프롭(Propp), 그레이마스(Greimas), 바스(Barthes) 같은 형식주의자들은

인물의 기능 면에 초점을 맞춘다. 인물을 언어적 구조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채트먼(Chatman)은 인물을 자치적인 존재(seres autónomos)로 본다. 즉 인물은 외모와 자질을 동시에 갖춘 존재이고 독자들은 이야기 속 인물 묘사를 디테일한 사항까지 체크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 나간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르만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십년 전 발터를 암살한 자이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진범을 찾아 조직 내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사명의식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주인공 다르만은 범법자의 역할을 맡은 동시에 정의를 대변하는 모순적인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다른 두 범죄사건, 발터 암살의 주범인 동시에 과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실질적인 배반자를 처단하는 인물인 셈이다.

또한 다르만은 탐정(detective)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직관에 의존한 수사를 펼친다. 가령 코난 도일의 명탐정 셉록 홈즈와 같은 이성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논리와 과학의 자리는 내전과 이십년 전 발터 사건에 대한 회상으로 대체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과거에 진범을 찾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도 못했던 그의 죄의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신중한 킬러의 면목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은 그가 24시간 내에 벌였던 역동적인 탐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게 만든다.

다르만은 그가 속한 조직 내의 영웅이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무결점의 영웅이 아니라 본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전문 킬러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식하고 후회하는 인간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즉 발터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죄가 있는 영웅이기는 하나 그의 행동과 감성은 여타의 인물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직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안락한 삶을 뒤로 미루고 길을 나서서 충직한 사람이다. 또한 일반적인 탐정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부유한 고객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의뢰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고 내전 패배에 대한 분노, 승자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발터와 레베카 오소리오에 대한 잘못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어쩌면 발터 사건은 다르만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내전과 독재가 초래한 동일 조직 내에서

의 혼란과 불의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만은 전쟁의 승자에 해당하는 지배계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침입자가 아니라 이념적 동지를 팔아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면서 정치적 부패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기생하는 반영웅에 맞서는 영웅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인공 다르만은 지난한 역사의 트라우마를 부분적으로나마 치유하려고 애쓰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왕자』의 주인공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명령을 내리는 비밀조직의 전화에 불응하기도 한다. 비밀 요원으로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다.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이십 년 전 발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면 서부터 임무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하기 시작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개인적 실수에 대한 만회는 결국 역사적 환경이 야기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실수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고히 하는 순간부터 다르만은 단순한 킬러본능의 탐정이 아니라 어느새 인간 본연의 고뇌와 양심적 고통을 수반한 무노스 몰리나의 독창적인 주인공으로 승화된다.

2) 도시 공간과 역사적 트라우마

일반적으로 소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진술할 때 구체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설의 배경을 이루는 두 요소는 과학적으로 실증이 가능한 물리적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설에서의 공간은 단순히 실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험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심리적인 공간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간성의 개념 속에는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장소의 뜻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공간, 심리적 공간 등 의식이 지속되고 있는 필드(field)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⁸⁾ 이런 측면에서 『어둠의 왕자』에서 묘사된 공간들은 시간과 결합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단순히 작품의 배

8) 한용환(2009),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p. 47.

경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면서 캐릭터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기도 한다.

전술했듯이 소설 속에 펼쳐지는 스토리는 이십 년의 세월을 넘나든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다룬 서술 시간은 두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이십 년 전 영화관 부속 건물에 나타난 다르만의 체류 기간, 즉 발터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발디비아-우가르테의 죽음으로 종결되는 다르만의 마드리드 재방문 기간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두 사건 모두 스페인 내전과 독재체제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비록 소설은 내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전개에 필요한 때에 간간히 다루고 있다. 가령 다르만은 내전 후에 발터를 죽이기 위해 마드리드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으며 발디비아-우가르테는 내전 기간 동안 함께 일했던 그의 동지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전쟁이 끝난 후 처음 마드리드에 왔을 때 기차를 내리면서 레베카 오소리오의 소설 『사로잡힌 마음』을 샀다.(89)

내가 도착하기 몇 달 전에 누군가 유니버설 극장에 피난처를 마련해달라고 찾아왔다. 발디비아였다. 그는 나와 함께 1937년부터 마드리드가 함락될 때까지 군정보부에 근무했다.(122)

한편, 대개의 탐정 혹은 범죄소설에서 그렇듯이 소설 속 사건은 도시의 건물, 혹은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개된다. 거기에는 현세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공간에서 다르만은 자신의 행동과 인간 현실을 되돌아보는 영웅적인 인물로, 사악한 세력으로 대변되는 발디비아-우가르테는 창고, 나이트클럽, 시네마 부속 건물 등과 같이 빛이 없거나 부족한 공간에서 암약하는 반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대조는 일인칭 주인공 화자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물들의 캐릭터를 극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마드리드는 단순히 실재하는 도시의 모습이 아닌 역사적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설적 공간으로서 주인공의 기억과 범죄의 재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된다. 여기

에서는 무뇨스 몰리나가 주인공 다르만으로 하여금 마드리드라는 도시로 상징되는 기억의 영토(*los territorios de la memoria*)를 통해 이십 년 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사건, 인물들을 병치시키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서사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뇨스 몰리나는 스페인의 수도를 서사의 핵심 공간으로 선택한다. 마드리드는 이십 년의 세월을 두고 발터와 안드라테의 대칭적 죽음이 발생한 장소이다. 서사 공간의 선택은 그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성격과 분리하여 놓고 볼 수 없다. 마드리드는 다르만이 프랑코 군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 활동하던 곳이고 발디비아우가르테와 동지적 관계를 맺은 곳이다. 또한 내전 기간 중 마드리드에는 비밀 조직의 지도부가 있었고 이후 프랑코 비밀 경찰 본부가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마드리드는 내전과 독재 시대, 소설 사건과 등장 인물간의 긴밀한 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장소로서 무뇨스 몰리나의 소설적 공간으로 채택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다르만이 소속되어있는 비밀결사조직은 국내외적으로 스페인과 유럽에 요원을 두고 있다. 그는 영국 여권소지자이나 마드리드를 주요무대로 활동하는 요원이다. 그는 항상 도시 공간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눈에 보이는 장소와 사물들을 주시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되짚어보는 인물이자 화자이기도 하다. 다음은 주인공이 마드리드 호텔 방에서 내려다 본 거리의 풍경이다.

나는 뒤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어둠이 내린 거리, 한산한 골목, 행인도 없이 깜빡거리고 있는 신호등을 바라본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어느 도시와 다를 바 없다. 그들 가운데 어떤 도시에서는 어둠이 내리면 아주 멀리서 방문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거리를 내어주고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무로 만든 쪽문과 황토색 혹은 황갈색 파사드 뒤에 있던 불쌍한 생명들을 가슴 아프게 떠올린다. 아주 오래전 절망에 빠진 어느 날 밤에 이와 비슷한 거리에서 베레모와 담요, 허름한 두건을 쓰고 헌병들 앞에 줄지어 서있었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헌병들은 프랑스어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를 하면서 무기와 담배를 빼앗곤 했다.(23-4)

다르만은 마드리드 거리를 바라보면서 지난 역사의 상흔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거리는 단순한 풍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적 공간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발터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유니버설 시네마 부속 건물은 발터, 레베카 오소리오, 발디비아-우가르테, 다르만에게 이십 년 전 사건이 벌어진 공간이다. 내전 당시 조직원들의 주거지이자 은신처였던 그곳은 발터와 레베카의 사랑, 발디비아-우가르테의 음모와 배신, 발디비아-우가르테와 레베카의 내연관계 등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또한 스토리 말미에 드러나듯이 발디비아는 정신착란을 일으켰던 레베카를 그곳에 감금했으며, 그녀의 딸도 감금하려고 했던 장소이다. 그곳은 나이트클럽 ‘보이테 타부’에서 비밀통로, 즉 하수구와 비슷한 터널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은밀한 곳이다. 비밀통로는 아주 좁고 낮은 터널로서 다르만에게는 죽음의 왕국이며 음모가 꿈틀거리는 어두운 땅속과도 같아서 점점 들어갈수록 범죄와 부패의 뿌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유니버설 시네마는 이십 년 전 발터 사건이 시작되고 발디비아-우가르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린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폐관되어 흉물스런 유물로 전락한 장소이다.

이미 극장 안에는 불빛이 없었다. 입구와 둥그런 모양의 매표구는 벽돌과 회반죽으로 막혀 있었고 그 벽 앞에는 자물쇠와 몇 겹의 체인으로 묶인 접이식 철책이 놓여 있었다. [...] 파사드 전면은 계속해서 붙인 포스터로 겹겹이 덮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햇볕과 비로 인해 탈색되어 있었다. 더 가까이 가보니 벽면은 길게 균열이 나있었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은 패어있고 차양은 단지 철골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202)

이외에도 발디비아-우가르테와 젊은 레베카가 출현했던 창고와 나이트클럽도 어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다르만은 창고 안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담배 피우는 남자의 모습을 낯설지 않게 느낀다. 나중에 나이트클럽 ‘보이테 타부’의 이층 객석 후미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체를 사내와 동일한 사람인 것을 직감한다. 나이트클럽은 다르만에게 훔치는 젊은 레베카의 모습을 보고 동일한 이름을 지녔던 그녀의 어머니를 연상시킨 장소로서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 혼재하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거기 측면 객석에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유니버설 시네마 부속 건물로부터 연결된 컴컴하고 어두운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온 발디비아-우가르테가 담배를 피우며 쇼를 관람하고 있다. 그 통로는 이십 년 전 발터가 영화관에서 나이트클럽으로 도주할 때 이용했던 길이지만 이제는 다르만이 반대편에서 진입하여 조직의 배신자 발디비아-우가르테에게 도달하는 통로가 된다. 이처럼 다르만이 발터의 도주로를 거슬러 가면서 발디비아-우가르테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통로 역할을 하는 이 공간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하는 역사적 순환 고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리스본의 겨울』에서 리스본을 이국적인 도시로 설정했던 작가는 『어둠의 왕자』에서는 마드리드를 선택했다. 그러한 마드리드는 구체적인 공간의 개념을 넘어 주인공의 정체성과 환유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스페인 태생의 다르만은 내전 이후 영국으로 망명하여 살았기에 그 어떤 공간과도 적절하게 매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드리드라는 공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의 기억과 직관은 망각과 무관심으로부터 깨어나면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들과 조우한다.

마드리드에 올 때 마다 세월이 기억에 덧칠해 놓은 무관심과 망각의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나를 아프게 한다. 과거와 같은 불빛, 거리 위로 내리는 빗속에서 번들거리는 철로들, 벽돌과 흙 자루로 담을 두르지 않은 시벨리우스 광장의 하얀 동상.(62)

이와 같이 다르만이 재회하는 도시의 장소와 거리들은 과거의 일들을 현재 화시키면서 주인공이 입은 상처를 되살리는, 즉 역사적 트라우마를 간직한 심리적 공간으로 재현된다. 다르만은 이십 년 전에 동일한 도시에서 발터 제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체험했던 장소들을 운신하는 과정 중에 과거에 대한 기억과 상처를 부단히 떠올린다. 이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기억의 층위가 의식의 수면 위로 부상하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사건에 대한 서술 층위에 병치되면서 두 사건의 유사성을 깨닫게 되자 마침내 당면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트라우마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부유하고 생성됨으로써 작가가 추구하는 소설적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4. 결론

다르만은 한때 비밀 조직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배신자의 누명을 뒤집어 쓴 발터를 죽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십 년 후의 그는 조직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독자는 다르만의 서술을 통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적 흐름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지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면서 현재 사건과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은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퍼즐을 맞추는데 필요한 도구가 된다. 다르만은 마치 보르헤스와 에코의 주인공이 미로에 처했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두 사건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역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즉 이십 년 전에 다르만이 살해했던 발터는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고, 오히려 발터가 밀고해서 프랑코 비밀경찰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었던 발디비아가 꾸민 일이었음을 밝혀낸다. 범인은 그동안 ‘어둠의 왕자’로 배후에서 암약하며 모든 일을 조정했던 마드리드 비밀경찰의 책임자인 발디비아-우가르테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작품은 내전과 프랑코 시대의 암울한 색채를 배경으로 망각이 아닌 기억을 매개로 잃어버린 역사의 진실을 서사적 차원에서 복원 혹은 되짚어 내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의 소설 경향은 비단 『어둠의 왕자』뿐만 아니라 『폴란드 기병』을 비롯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근본적인 기층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에 등장한 인물의 기억에 대한 단순한 해석 수준의 분석을 벗어나 역사적 차원에서 부과된 개인의 정신적 외상이 기억을 통해 서사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실제 혹은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을 주의

깊게 살피고자 했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진실보다는 소설적 진실이 현대사의 질곡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한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사화된 기억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언급하는 방식은 치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회적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의 소설은 과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서사적 차원에서의 접근임은 물론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유의미한 문학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 참고 문헌

- 김원중, 「역사기억법(2007)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배/보상, 화해, 위령의 측면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1, No. 1, pp. 193-220, 2010.
- 김현균·임호준, 「현 단계 스페인 과거사 청산의 동향과 전망」, 『이베로아메리카研究』 제17권, pp. 23-45, 2006.
- 레이몬드 카 외, 『스페인사』, 김원중·황보영조 옮김, 까치, 2000.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5.
- 안금영, 「『폴란드 기병』, 발견된 과거와 정체성」, 『서어서문연구』29호, pp. 349-51, 2003.
-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 임지현,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2004.
- 임호준, 「과거의 유령: 80년대 스페인 문화와 무뇨스 몰리나의 포스트 모던 소설」, 『서어서문연구』제27호, pp. 378-402, 2003.
- _____, 「프랑코리즘의 청산에 있어 80년대 초 모비다 문화의 정치적 함의」, 『스페인어문학』30호, pp. 295-317, 2004.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09.
- Aguilar Fernández, Paloma, *Memoria y olvido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 Alianza, 1996.
- Beever, Anthony, *La Guerra Civil Española*, Barcelona: Crítica, 2005.
- García, Javier Carlos, “Beltenebros: Una misión incierta”, *España Contemporánea*, 12 (2), pp. 7-20, 1999.
- Mas, Pasqual, *Beltenebros, de Muñoz Molina*, Madrid, Editorial Síntesis, 2002.
- Muñoz Molina, Antonio. *Beatus Ille*, Barcelona: Seix Barral, 1986.
- _____, *El jinete polaco*, Barcelona: Planeta, 1991.
- _____, *Beltenebros*, Barcelona: Seix Barral, 2003.
- Pope, Randolph D., “Posmodernismo en España: el caso de Antonio Muñoz Molina” *España Contemporánea*, 5(2), pp. 111-19, 1992.
- Vidal-Folch, Ignacio. “Entrevista”, *ABC*, Madrid, 1989.

❖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trauma in Antonio Muñoz Molina's
Beltenebros

Kim Chan-kee

Beltenebros is Antonio Muñoz Molina's third novel. Its plot originates in a criminal act. Darman, the main character, arrives in Madrid to kill a traitor of the undercover organization to which he himself belongs. Treason is paid with death and Darman is in charge of the executions. The intricate story of espionage and intrigue is absorbing. Unlike other novels of the genre, in *Beltenebros* we can witness a uniqu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main character. In his fiftieth anniversary, Darman becomes conscious of the painful and devastating effects of his criminal acts on the lives of the people he has crossed paths with. Then, for the first time, he acts like a Romanesque hero by killing Valdivia-Ugarte, a deceitful mole who has been manipulating the strings of the plot to his own benefit. The story unfolds along an almost uniform progression of chronological time, only interrupted by random memories of a past that twenty years ago destroyed Walter's life, and in which Darman and the rest of the characters are all implicated. Few references to the Spanish Civil War inserted in the discourse are, however,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depiction of a historical trauma, as a triggering force for the episodes of the novel, or as justification to Darman's crimes as well as those of the clandestine Communist Party. Indeed they were the victims of the conflict and the winners inflicted upon them hatred, repression, treason and disloyalty. As in other Muñoz Molina's novels, the literary space, in this case Madrid, propels the development of the plot, and plays a protagonist role only equal to that of the main characters. It is in Madrid where Darman lives until he becomes prisoner of the enemy army, or where the symmetrical deaths

of Walter and Andrade take place. Other spaces inhabit Madrid: the *Universal Cinema*, symbolic territory of the secret and hidden, where the story,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of the characters start and end the warehouse; or the *Boîte Tabú*, the nightclub that frequents Valdivia-Ugarte through secret passages connected with the *Universal Cinema*.

Key Words

스페인 소설,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 역사적 트라우마

Spanish Novel, Antonio Muñoz Molina, Historical Trauma

논문접수일: 2012. 02. 20.

심사완료일: 2012. 03. 15.

게재확정일: 2012. 03. 16.